

# 1493年 水鍾寺 석탑 봉안 왕실발원 불상군 연구

박 아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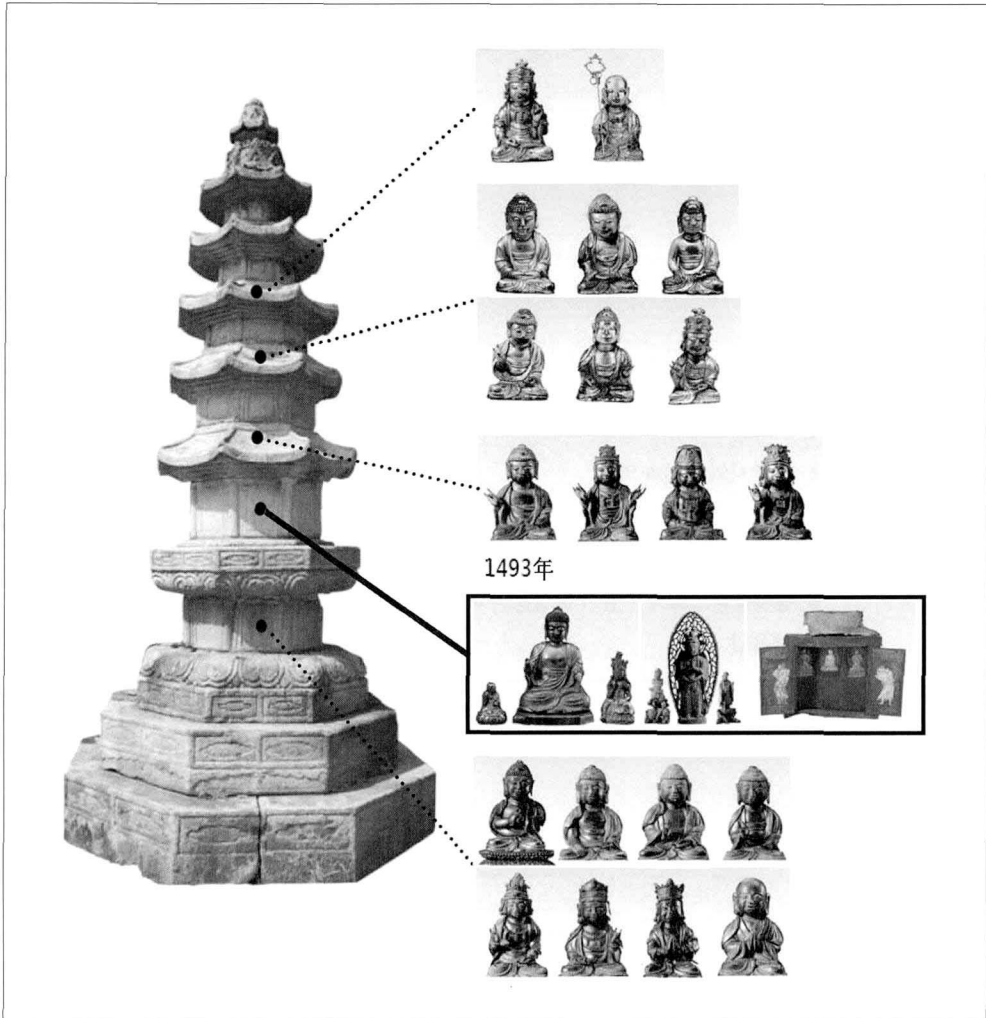
- I. 머리말
- II. 수종사의 창건과 역사
- III. 1493年 봉안 불상군의 시주자 및 발원문
- IV. 1493年 봉안 불상군의 구성과 특징
- V. 왕실발원으로서 수종사 불상군의 의미
- VI. 맺음말

## I. 머리말

조선왕실의 佛事 후원자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大妃와 妃嬪 등 여성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조선왕실의 여성들이 시주·발원한 대표적인 불상 중 하나가 水鍾寺 팔각오층 석탑 봉안 불상군이다.<sup>1</sup> 석탑 안에서는 1957년, 1970년 두 차례에 걸친 해체 과정에서 30구의 불상군이 발견되어 큰 관심을 끌었다. 1957년에는 기단 중대석에서 금동불상 8구, 초층 탑신석에서 금동불상 3구와 목조상 3구, 초층 옥개석에서 금동불상 4구가 발견되었다. 1970년에는 2층 옥개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원

<sup>1</sup> 수종사는 조선시대 史料에는 水鍾寺라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는 水鐘寺로 사용되고 있으며 여러 문헌에는 두 글자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의 명칭에 따라 '水鍾寺'로 하였다.



도 1 수종사 팔각오층 석탑 층별 불상 봉안도

석에서 금동불상 9구, 3층 옥개석에서 금동불상 3구가 발견되었는데, 4구는 분실되어 현재 총 26구가 남아있다.<sup>2</sup> 탑에 불상을 봉안하는 전통은 삼국시대부터 있었지만 수종사 석탑과 같이 시대를 달리하는 다량의 금동불상군이 봉안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무엇보다도 이 불상군이 중요한

<sup>2</sup> 1957년 석탑해체는 벌어진 초층 탑신석과 초층 옥개석 사이로 보이는 유물을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상륜부와 5층을 들어 올린 다음 2, 3, 4층을 함께 들어 올려 1층 옥개석을 열었다. 이로 인해 2층과 3층 옥개석의 불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1970년에 석탑을 사찰 경내로 이동시키기 위해 해체하면서 나머지 금동불상군이 수습되었다.

이유는 불상에서 銘文과 腹藏發願文이 발견됨에 따라 발원자와 조성연대 및 목적 등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초층 탑신석에서 발견된 금동석가불좌상 바닥에는 ‘施主 明嬪 金氏’의 명문이 있고, 불상 안에는 淑容 洪氏, 淑容 鄭氏, 淑媛 金氏가 발원한 복장발원문이 있었다. 또한 기단 중 대석에서 발견된 금동비로자나불좌상 대좌 바닥에는 仁穆大妃 발원의 造成記가 있어 조선시대 왕실발원의 불상군으로 밝혀졌다.

수종사 불상군을 조성시기별로 살펴보면, 1493년에 숙용 홍씨, 숙용 정씨, 숙원 김씨가 석탑의 초층 탑신석에 봉안한 불상 6구와, 1628년에 인목대비가 기단 중대석 및 1층·2층·3층 옥개석에 봉안한 금동불상군 23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도 1). 이 두 불상군은 130여년의 제작시기 간격만큼이나 불상의 도상과 양식적 특징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본고에서는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1628년에 인목대비가 발원한 금동불상군은 제외한 1493년 봉안 불상군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sup>3</sup>

수종사 불상군은 그동안 조선시대 불교 조각의 대표작으로 여러 연구에서 비교 대상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비해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sup>4</sup>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왕실 여성과 수종사의 관계, 불상의 시주자와 발원자 및 봉안 목적을 밝히고, 불상군의 구성과 특징을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1493년 수종사 석탑 봉안 불상군이 갖는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 II. 수종사의 창건과 역사

수종사는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송천리 운길산에 위치한 사찰이다.<sup>5</sup> 수종사의 정확한 창건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정약용의 『遊水鍾寺記』를 보면 수종사는 신라 때 지은 古寺이

<sup>3</sup> 본고는 필자의 『水鍾寺 팔각오층 석탑 봉안 왕실발원 금동불상군 研究』(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9)를 기초로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석사학위 논문에서는 이 두 불상군을 모두 다루었으나, 1628년 발원 금동불상군에 관해서는 또 다른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sup>4</sup> 1957년과 1970년 석탑의 해체 조사 후, 수습된 유물에 대한 보고서 형식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후 금동불감 뒷면의 불화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었을 뿐 불상에 대해 면밀히 다룬 논문은 없었다. 尹武炳, 『近來에 發見된 舍利關聯 遺物』, 『美術資料』1(1960); 尹武炳, 『水鍾寺八角五層石塔內發見遺物』, 『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을유문화사, 1969); 鄭永鎬, 『水鍾寺石塔內發見金銅如來像』, 『考古美術』106·107(1970); 柳麻理, 『水鍾寺 金銅佛龕 佛畫의 考察』, 『美術資料』30(1982).

<sup>5</sup> 수종사는 1911년 일제의 사찰령에 의해 奉恩寺의 末寺로 편입되었다가, 1968년 奉先寺의 末寺가 되었다.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승경지로서 문인들이 들러 수종사에 관한 시를 남기기도 했다. 우경호, 『水鍾寺와 조선후기 문인』, 『국문학연구』2(1998) 참고.

며 절에 샘이 있어 바위틈으로 물이 나와 땅에 떨어질 때 종소리를 내어 수중사라 한다고 전해진다.<sup>6</sup> 『水鍾寺重修記』, 『奉恩寺本末寺志』 등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世祖가 1459년(세조 5)에 병을 치료하고자 강원도 오대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양주 양수강에 하룻밤을 보내던 중 운길산에서 종소리가 들려왔다. 다음날 세조가 이곳을 조사해보니 암굴 속에서 18나한상을 발견하였는데, 바위틈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종소리를 내고 있어 이곳에 절을 짓게 하고, 수중사라 칭하게 되었다고 한다.<sup>7</sup>

수중사에는 태종의 딸 정혜옹주의 사리탑이 있어 주목된다(도 2).<sup>8</sup> 사리탑은 옥개석 낙수면에 ‘太宗太后貞□翁主舍利塔施主□□柳氏錦城大君正統四年己未十月日立’라고 새겨진 명문을 통해 1439년(세종 21)에 □□ 유씨와 금성대군이 정혜옹주를 위해 사리탑을 세웠다고 알려져 있다.<sup>9</sup> 그러므로 수



도 2 정혜옹주 사리탑, 1439년, 높이 2.38m, 경기도 남양주 수중사(박아연)

6 “...新羅古寺有泉從石竇出落地作鐘聲故曰水鍾云.” 丁若鏞, 『遊水鍾寺記』, 『與猶全書』第1集 第13卷.

7 “漢陽東七十里許, 有山曰雲吉, 有寺曰水鍾也. 水鍾之稱築於天順三年, 世祖朝御駕龍船, 泊纜于二水頭經霄之際, 忽然鐘聲, 落于龍船, 翌朝親幸茲山, 巖穴有十八羅漢奇之異之, 令八伯而築臺, 招群匠而建寺, 賜牌田畝而豪佛, 結構寮舍而安僧, 扁寺額以水鍾也...” 『水鍾寺重修記』

“朝鮮世祖五年(己卯)命八道方伯, 於早谷山(雲吉山)南麓, 累階築石臺卍是寺, 名曰水鍾, 以世祖夜泊龍船于兩水灣, 夜半聞鐘聲翌日使人尋之, 得十八羅漢於此, 遂卍寺故, 一說云, 世祖親登此山掘地得水, 又得小鐘故云...” 『奉恩寺本末寺志』

“在早谷山寺居高頂東臨龍津我世祖幸是寺掘地得泉又得鐘故名.” 『梵宇考』廣州 寺刹 水鍾寺.

“在早谷山據高頂東臨龍津我世祖嘗幸時寺掘地得泉又得小鍾故云.” 『重訂南漢志』卷3 上篇 佛宇 水鍾寺.

8 정혜옹주는 평소 불심이 깊었는데 다비 뒤 사리가 나와 사리탑을 만들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權相老, 『韓國寺刹全書』下(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p. 723. 사리탑은 수중사에서 서쪽으로 벗어나 산비탈에 있었다. 조선시대 수중사는 사세가 컸을 뿐만 아니라, 사리탑이 단독으로 운길산에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정혜옹주는 수중사와 연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1939년에 사리탑을 해체수리 할 때 발견된 청자호 안에는 금동구충소탑, 은제도금육각각, 수정사리병이 나와 현재 보물 제259호로 지정되었다.

9 금성대군(1426-1457)은 세종과 소헌왕후의 아들로 의빈 권씨에게 자랐다. 금성대군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인 의빈 권씨의 딸 정혜옹주를 위해 사리탑을 세운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시주자는 정혜옹주의 어머니 의빈 권씨라 전해지기도 하지만, 현재 명문은 마모되어 확인하기 어렵다. 『端宗實錄』卷6, 端宗 1年 6月 26日(辛亥); 權相老, 위의 책, p. 724.

종사는 늦어도 1439년 이전에 창건되었고, 이 후 1459년에 크게 중창되어 寺名을 수종사라 한 것으로 보인다.<sup>10</sup>

수종사는 중창 이후에 왕실 여성들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왕실사찰로 성장하였다. 먼저 1469년(예종 1)에 仁粹大妃 韓氏가 粹嬪시절에 정업원 주지 이씨와 함께 수종사에 小鐘을 시주한 점과(도 3),<sup>11</sup> 1493년에 숙용 홍씨, 숙용 정씨, 숙원 김씨가 팔각오층 석탑에 금동과 목조불상군을 봉안한 사실이 주목된다.<sup>12</sup> 또한 수종사에 관한 『朝鮮王朝實錄』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도 3 수종사 동종, 1469년, 높이 49.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朝鮮前期國寶展』, 1996, p. 227)

“...惠社堂, 正覺 등과 같은 무리들이 수종사에 머무르면서 7, 8일을 지냈고, ... 그들을 따르는 女僧과 그 侍婢의 수가 얼마인지를 알지 못할 정도였으니...”<sup>13</sup>

“...여승이 수종사에 가서 三齋를 설치하고, 삼재가 지난 후에 다른 여승들은 모두 돌아갔는데, 오로지 井觀과 惠社堂 만이 그대로 머물러 四齋를 기다렸으니,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 청컨대 정관과 혜사당 등을 부녀자가 절에 올라가는 법전으로써 단죄하고...”<sup>14</sup>

“임금이 대비의 명으로 하교하기를, ...

‘지금 이후로는 봉선사, 회암사, 용문사, 정인사, 수종사, 개경사, 상원사, 낙산사, 그리고 정업원, 복세암,

<sup>10</sup> 현재 절이 있는 마당과 아래쪽 절터에는 옛기와편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초 무렵 절의 규모가 상당히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5(1995), p. 227.

<sup>11</sup> 小鐘의 동체부에는 ‘成化五年七月日 水鍾寺小鐘鑄成 施主粹嬪韓氏 淨業院住持李氏’라는 명문이 있어 조성연대와 시주자를 명확히 알 수 있다.

<sup>12</sup> 수종사 팔각오층 석탑(경기도유형문화재 제22호)은 높이가 3.3m인 소규모의 탑이다. 기단부는 2단의 8각 지대석을 계단식으로 올린 위에 상대석·중대석·하대석으로 이루어진 기단이 있고, 그 위에 5층의 탑신이 있는 구조이다. 2층 이상은 각층마다 탑신석과 옥개석을 합쳐서 一石으로 만들었다. 尹武炳, 앞의 논문, pp. 948-949 참고.

<sup>13</sup> 『成宗實錄』卷32, 成宗 4年 7月 16日(乙巳).

<sup>14</sup> 『成宗實錄』卷32, 成宗 4年 7月 20日(己酉).

<sup>15</sup> 『成宗實錄』卷173, 成宗 15年 12月 17日(庚午).

연골압 등의 절은 內需司로 하여금 맡아서 檢察하게 하라.' 하였다."<sup>15</sup>

이외에도 1469년(예종 1)에는 왕실에 물의를 일으킨 南怡의 부평 받을 水鍾庵에 주게 하였으며,<sup>16</sup> 1501년(연산 7년)에는 대군과 공주의 딸나무를 하는 곳(나무갓)의 점유에 대해 논하면서 수종사의 나무갓도 폐지할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조선 전기 수종사의 사세를 짐작할 수 있다.<sup>17</sup>

이처럼, 수종사는 세조대에 중창된 후 예종, 성종, 연산군대에 왕실사찰 중 하나로 크게 성장하였다. 특히 성종대에 대비의 비호 아래에서 사세가 커지고, 왕실 여성들뿐만 아니라 많은 여승과 士族의 여성들이 드나들었던 사찰이었다.

이 후 수종사에 대한 기록이나 연혁은 전하는 것이 거의 없지만, 1628년에 인목대비가 석탑에 금동불상군을 봉안한 점, 1629년에 수종사 승려가 내수당 신설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아,<sup>18</sup> 수종사는 적어도 17세기 전반기까지는 사세가 컸을 뿐만 아니라 사찰 불사의 강력한 후원 세력이었던 왕실 여성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던 사찰로 추정된다.

### Ⅲ. 1493年 봉안 불상군의 시주자 및 발원문

1493년 수종사 석탑 봉안 불상군은 명문과 발원문이 있는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 전기 왕실발원의 탑 봉안 불상군으로 매우 주목된다. 금동석가불좌상 하단 은판에는 음각으로 '施主 明嬪 金氏'가 새겨져 있고 그 양편에는 梵字가 墨書되어 있다(도 4).

명빈 김씨(?-1479)는 태종의 후궁으로 태종부터 성종재위시기에 이르기까지 내명부를 지킨 왕실의 어른으로서, 명빈 김씨에 관한 다음의 기록을 통해 당시 왕실의 다른 어떤 후궁



도 4 수종사 금동석가불좌상바닥 명문  
(柳麻理, 『水鍾寺 金銅佛龕 佛畫의 考察』,  
『美術資料』30, 1982, p. 41)

<sup>16</sup> 수종암은 수종사 옛 터이다. 『睿宗實錄』卷4, 睿宗 1年 3月 14日(戊戌).

<sup>17</sup> 『燕山實錄』卷41, 燕山君 7年 12월 25日(己巳).

<sup>18</sup> 『承政院日記』卷27, 仁祖 7年 7月 12日(乙未).

<sup>19</sup> '明嬪 金氏'는 성종의 후궁 중에서도 동일한 이름을 확인할 수 있으나, 성종의 후궁 淑媛 金氏가 중종말기에 明嬪으

들보다도 특별한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9</sup> 1470년(성종 1)에는 대왕대비가 세조와 성종을 보양한 공이 있는 명빈의 청에 따라 신윤에게 관직을 주었다.<sup>20</sup> 1473년(성종 4)에는 성종이 사냥을 구경하고 환궁할 때 명빈 궁에 들러 쌀과 콩을 하사하였다.<sup>21</sup> 이처럼 명빈 김씨는 선왕의 후궁이자 후대 왕들을 보필한 공으로 임금과 대비, 비빈들에게 왕실의 어른으로서 대우를 받았던 인물이었다. 더불어 명빈 김씨는 승려들과 직접 교류하면서 왕실과의 가교 역할을 했다. 그 예로 1469년에 명빈의 代身僧이었던 一山이 전라도에서 민심을 동요시키고 승려들에게 위협을 가한 자를 명빈에게 고하여 처벌하게 한 일이 있었다.<sup>22</sup> 1471년에는 승려 一峯이 대왕대비를 비롯한 왕실 일가의 이름이 적힌 勸文을 명빈에게 바치자, 이를 명빈이 대왕대비에게 고해 죄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게 했다.<sup>23</sup> 이처럼 명빈 김씨는 독실한 재가신도로 승려들과 소통하면서, 궐 밖에서 일어난 사건을 해결해주는 역량도 발휘했다.

명빈 김씨는 조선 전기 불교미술 조성의 적극적인 후원자로서, 그의 위치와 그에 따른 영향력으로 불사는 큰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먼저, 명빈 김씨가 발원한 경전으로는 1432년 『佛說大報父母恩重經』과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sup>24</sup> 1447년 『詳校正本慈悲道場識法』,<sup>25</sup> 1451년 『妙法蓮華經』<sup>26</sup> 등이 있다. 이는 명빈 김씨가 왕과 왕후, 부모 등의 명복을 목적으로 경전간행에 활발하게 참여했음을 보여준다. 명빈 김씨가 시주, 조성한 불상으로는 수종사 금동석가불좌상 외에도 1458년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이 있다.<sup>27</sup> 이는 의빈 권씨, 효령대군 등과 함께 왕실

로 승격된 점으로 볼 때, 수종사 불상 하단에 새겨진 명빈 김씨는 태종의 후궁임을 알 수 있다. 명빈 김씨는 1411년(태종 11)에 명빈으로 책봉되었고 1479년(성종 10)에 세상을 떠났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다. 『全州李氏大觀』(全州李氏大同宗約院, 1999)(지두환, 『성종대왕과 친인척』3 (역사문화, 2007), p. 101에서 재인용); 『太宗實錄』卷22, 太宗 11年 11月 20日(丁丑); 『成宗實錄』卷105, 成宗 10年 6月 5日(庚寅).

<sup>20</sup> 『成宗實錄』卷6, 成宗 1年 7月 16日(壬辰).

<sup>21</sup> 『成宗實錄』卷34, 成宗 4年 9月 24日(壬子).

<sup>22</sup> 『睿宗實錄』卷4, 睿宗 1年 3月 18日(壬寅).

<sup>23</sup> 『成宗實錄』卷10, 成宗 2年 4月 7日(己酉)·8日(庚戌)·9日(辛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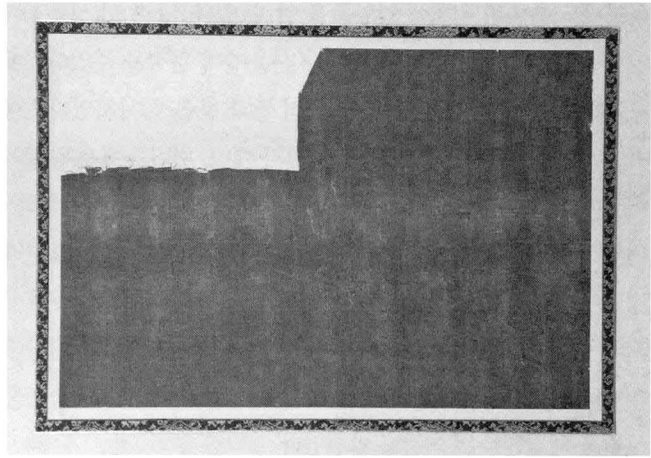
<sup>24</sup> 주상전하와 왕비 및 왕세자의 壽福을 위해 간행되었으며, 보물 제959호(기림사 비로자나불복장전적), 보물 제1125호(국립중앙박물관 소장)로 지정되었다.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 1988년 指定篇(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9), pp. 137-139.

<sup>25</sup> 태종, 원경왕후, 소헌왕후와 부모의 명복을 위해 간행되었으며, 보물 제1252호로 지정되었다(보림사 소장(9-10권)).

<sup>26</sup> 貴人 崔氏와 함께 원경왕후, 소헌왕후, 부모의 명복을 위해 간행되었으며, 보물 제1107호로 지정되었다(호림박물관 소장(5-7권)).

<sup>27</sup> 복장기에는 1457년(세조 3)에 정암산 법천사에 봉안하려는 목적으로, 1458년(세조 4)에 성철, 성수, 극인, 혜충 등의 승려를 化主로 하여 태종의 후궁인 의빈 권씨와 명빈 김씨, 효령대군 등 275인이 참여하여 아미타삼존을 조성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삼존불상 중 관세음보살상과 지장보살상은 없어지고 아미타불상만 남아있다.

의 안녕과 國泰民安을 기원하며 발원한 것이다. 이 중 명빈 김씨와 의빈 권씨는 조선 초기 대표적인 왕실 여성 승불자로 태종 승하 후 남은 생애를 불교에 의지하며 지내면서 함께 불사를 행할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의빈 권씨는 앞서 언급한 수종사 사리탑의 주인공인 정혜옹주의 어머니로, 그에게 수종사는 특별한 의미의 사찰이었을 것이



도 5 복장발원문, 1493년, 紺地朱書, 42×28.5cm, 불교중앙박물관 소장 (불교중앙박물관 제공)

다.<sup>28</sup> 이처럼 수종사에 태종의 딸 정혜옹주의 사리탑의 조성 and 석탑에 명빈 김씨가 시주한 불상이 안치된 것으로 보아, 수종사는 태종대의 왕실 여성들과 인연이 있었던 사찰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조선 전기 왕실의 대표적인 승불자였던 명빈 김씨는 태종 승하 후 여생을 불교에 의지하며 많은 불사를 행하였다. 그 중 수종사 석탑에서 발견된 금동석가불좌상은 명빈 김씨의 돈독한 불교신앙과 영향력으로 조성된 조선 전기 대표적인 불상 중 하나이다.

한편, 금동석가불좌상 내부에서 복장물과 발원문이 발견되었다.<sup>29</sup> 흥미로운 사실은 금동석가불좌상에 새겨진 명문과 복장발원문의 발원자와 조성시기가 다르다는 점이다. 따라서 발원문 내용의 검토를 통해 불상이 갖는 성격 및 조성시기와 발원목적 등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도 5).

<sup>28</sup> 의빈 권씨(1384-1469)는 1402년 정의궁주로 왕실에 들어와 1422년에 의빈으로 봉해졌다. 『太宗實錄』卷3, 太宗 2年 4月 18日(庚午); 『世宗實錄』卷15, 世宗 4年 2月 20日(丁未). 의빈은 1412년에 보령 금강암 미륵불좌상을 태종, 정혜옹주 등과 함께 조성하기도 했다. 1422년에 태종이 세상을 떠나자 여승이 되었는데, 당시 많은 후궁들이 머리를 깎고 佛法을 행하였다. 『世宗實錄』卷16, 世宗 4年 5月 20日(丙子).

<sup>29</sup> 복장물로는 비단과 명주로 감싼 은제사리통이 들어있었다. 尹武炳, 앞의 논문, pp. 956-957. 발원문은 청색 직물에 붉은 글씨로 쓰여 있다. 이 같은 청색 비단에 朱書한 조선 전기 발원문으로는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상의 발원문(1466)과 중수발원문(1599), 해인사 목조비로자나불상 중수발원문(1490)이 있다. 이들은 모두 왕실발원작으로 『造像經』에서 밝힌 것처럼 '靑緋紅書'를 따르고 있다.

弘治六年癸丑六月初七日淑容□氏淑容□氏淑媛金氏等端爲  
 主上殿下聖壽萬歲亦爲兒息咸亨福壽□行□修釋迦如來一軀  
 觀音菩薩一軀安激□□若其功德□意具□于後  
 主上(所?)天 義莫重焉 兒息骨肉情所篤也  
 富貴則極 難讀者□欲圖延年 常竭愚衷  
 百思莫伸 惟佛□□法門雖多 造佛是最  
 茲(肇?)檀誠 各捨己貲 重修古佛 莊嚴斯飾  
 虔點□眸 安妥塔廟 能事方周 微願必圓  
 頌王之德 日月並明 先王之壽 天地同久  
 兩王大妃 中宮世子 誕膺純嘏 咸躋壽域  
 抑亦己身 暨諸子甥□保康寧 福壽增崇  
 在在處處 涵□聖澤 生生世世 恒□主伴  
 施主

淑容洪氏	淑容鄭氏
惠淑翁主兩主	安陽君兩主
完原君兩主	奉安君
檜山君兩主	承福
□城君	
福蘭	淑媛金氏
石壽	徵淑翁主兩主

<sup>30</sup> “홍치육년 계축 유월초칠일 숙용홍씨, 숙용정씨, 숙원김씨 등이 오로지 주상전하께서 만세토록 수명을 누리시고 자식들 모두 복과 수명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석가여래 1구와 관음보살 1구를 봉안하면서 아뢰옵니다. 이 공덕으로 뜻과 같이 이루어지다. 주상전하는 그 뜻이 어찌 막중하지 않으리. 어린 자식은 뼈와 살인 바 정이 어찌 도탑지 아니하랴. 부귀가 지극하다. 어려움이 다 풀려 품은 뜻과 수명을 더 오래 늘려가고, 늘 어리석음과 쇠약함이 다하여지다. 많은 생각을 펼치기보다는 오로지 부처님을 생각함이 낫고, 법문이 비록 많으나 부처님을 조성함이 최고이다. 이에 정성을 베푸는데 힘쓰고 각자 자신의 돈을 희사하여 옛 부처를 중수하고 장엄하게 이를 장식한 다음, 정성 다해 눈동자를 점안하여 평온하게 담묘에 안치하니, 사방에서 두루 일이 잘 풀리고 소원을 이룸이 필히 원만하여지다. 임금의 덕을 칭송함이 해나 달과 나란히 하고, 선대왕의 수명이 천지와 같이 영원하며, 양쪽 두 분 대비마마, 왕후, 세자 큰 복을 받아 태어나셨으니, 모두 다 수명장수에 오르고 또한 스스로의 몸을 잘 다스려지다. 모든 아들과 사위들이 잘 자라 건강하고 마음 편안하며 복과 수명이 더욱 높아지고 머무르는 곳마다 주상의 성스러운 못에 잠기며 세세생생토록 항상 주인으로 모시오리다.(이하 시주자 생략)” 북장발원문의 원문은 윤무병 선생의 해독을 토대로 하여 일부 수정하였다. 尹武炳, 앞의 논문, pp. 961-962. (?)는 불확실, □는 해독 불명 글자이다.

□ 福	敬淑翁主
鐵壽	福 合
舜壽	福 崇
□ 蘭	

발원문에 의하면, 1493년 6월 7일, 숙용 홍씨,<sup>31</sup> 숙용 정씨,<sup>32</sup> 숙원 김씨<sup>33</sup>가 성종의 聖壽萬世와 德을 찬양하고, 대비들과 왕후, 세자 및 소생 자녀들의 福壽와 왕실의 안녕, 부귀와 소원성취를 기원하며 옛 불상을 중수하여 탑에 안치하였다고 한다. 발원문에는 시주자인 세 후궁과 함께 각 소생 자녀들의 이름이 태생 순으로 적혀있는데, 이는 자신들 뿐 아니라 자녀들이 불상 중수를 통해 부처의 은덕을 받게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금동석가불좌상을 중수하고 발원문을 넣었던 1493년은 불상을 시주한 명빈 김씨가 세상을 떠나고 14년이 지난 시기이다. 즉, 불상은 늦어도 명빈 김씨가 생존했던 1479년 이전에 조성되었고, 이를 성종의 후궁들이 다시 중수하여 석탑에 봉안했던 것이다.

성종대에는 어느 때보다 대비와 비빈, 공주들의 불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대왕대비 정희 왕후, 인수대비, 정현왕후는 불경 간행, 불화 제작 등에 적극적이었을 뿐 아니라 사찰의 보호는 물론, 불사 및 중수와 중창에 경제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환경은 숙용 홍씨와 정씨, 숙원 김씨가 대비의 보호 하에 있던 수종사에 불사를 행할 수 있었던 충분한 여건이 되었을 것이다.

이들은 1493년 수종사 석탑에 불상군을 봉안하기 전에 또 다른 불사를 함께 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1488-1490년에 인수대비와 인혜대비가 주관한 해인사의 중창불사에 시주자로 참여한 것이다.<sup>34</sup> 숙용 홍씨와 정씨, 숙원 김씨뿐만 아니라, 숙용 홍씨의 자녀 惠淑翁主와

<sup>31</sup> 숙용 홍씨(1457-1510)는 연산군 재위시기에 직첩을 빼앗기고 궁에서 내쫓겼다. 중종즉위 후 복권되어 慈壽宮으로 돌아왔다. 『中宗實錄』卷1, 中宗 1年 9月 2日(戊寅).

<sup>32</sup> 숙용 정씨(?-1505)는 甲子土禍 때 아들 安陽君, 鳳安君과 죽임을 당했다. 庶人の 준례에 따라 장사를 지냈다가, 중종 즉위 후 복권되었다. 『燕山君日記』卷52, 燕山君 10年 3月 20日(辛巳)·29日(庚寅); 『中宗實錄』卷1, 中宗 1年 10月 27日(壬申).

<sup>33</sup> 숙원 김씨(1475이전-1524이후)는 家舍에 불상을 두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불심이 깊었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中宗實錄』卷21, 中宗 10年 1月 18日(丙子).

<sup>34</sup> 해인사 대적광전·법보전의 목조비로자나불상에서 복장유물과 중수발원문이 발견되었다. 발원문은 1490년 5월에 僧 學祖가 撰한 것이다. 내용은 정희왕후가 학조에게 명하여 주관했던 해인사의 중건을 이루지 못하고 승하하자, 1488년(성종 19)-1490년(성종 21)에 인수대비와 인혜대비가 전각을 중수하고 主佛과 左右補處를 修補·改金하면서 왕실일가의 수복과 안녕을 기원한다는 것이다. 『海印寺 大적광전·법보전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조사보고서』(해인사·문화재청, 2008), pp. 46-48, 59-62.



## IV. 1493年 봉안 불상군의 구성과 특징

15세기는 억불정책 속에서도 왕실을 중심으로 수준 높은 불상이 조성된 시기이다. 또한 중국 명과의 교섭을 통해 수용된 외래양식과 새로운 요소들로 조선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불교조각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

수중사 1493년 봉안 불상군은 금동불감 안에 금동불상 3구와 목조불감 안에 목조상 3구로 오층석탑의 초층 탑신석에 봉안되었다. 이 불상군은 대표적인 조선 전기 불상 중 하나로, 당대의 불교조각 양식이 반영된 중요한 작품이다. 이 장에서는 당시의 시대흐름 속에서 수중사 불상군이 어떠한 구성형식과 특징을 지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금동불상



도 6 수중사 금동불상 3구, 1493년 봉안, 본존높이 15cm, 불교중앙박물관 소장(불교중앙박물관 제공)

금동불감 안에는 금동석가불좌상을 주존으로 왼쪽에 금동반가사유보살상, 오른쪽에 금동지장보살좌상이 안치되어 있었다(도 6).<sup>37</sup> 이러한 삼존 구성은 다른 탑 봉안 불상이나 석가삼존의 도상과 형식에서 벗어난 독특한 구성이다. 금동불상 3구는 처음부터 삼존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금동석가불좌상이 독존으로 불감에 안치되었고, 이후에 두 보살상이 봉안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 근거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3구는 함께 조성되었다고 보기에 어려울 정도로 양식과 크기가 각기 다르다. 두 번째로 본존인 석가불좌상과 협시로 있는 두 보살상은 일반적인 석가삼존의 형식에도 맞지 않다. 마지막으로 불감 내부가 금동석가불좌상을 중심으로 좌우 두 보살상을 함께 안치했을 때, 여유 공간이 없다는 점이다.<sup>38</sup> 세 상을 안치하기 위한 불감이라면 내부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명빈 김씨가 금동석가불좌상을 조성해 불감 안에 봉안하여 소장하였다가 이후 남은 내부 공간에 금동반가사유보살상과 금동지장보살좌상을 함께 넣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금동불상 3구는 각각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금동석가불좌상(높이 15cm)을 살펴보면, 얼굴은 고려 후기 불상 양식을 계승한 방형으로 가늘게 뜬 눈과 다문 작은 입으로 명상하는 듯한 표정은 조선 전기 불상에서 많이 나타나는 얼굴표현이다. 어깨는 넓고 각이진 형태이며, 하체는 상체에 비해 무릎 폭이 좁고 높이가 높다. 손은 신체에 비해 작은 편으로 오른손은 손바닥이 위를 향한 상태에서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고, 왼손은 손등이 보이도록 하여 팔꿈치까지 들어 올렸다. 이는 일반적인 석가불 뿐만 아니라 다른 불상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수인이다. 착의법은 통견의에 오른쪽 어깨를 덮은 대의를 걸치고, 가슴을 가로지르는 내의에는 묶은 띠 매듭을 선각으로 처리하였다. 머리는 푸른색으로 채색된 동글한 나발로 중앙계주와 뾰족한 육계 위에 작은 정상계주가 있다. 정상계주는 주로 15세기 중엽 이후의 불상에서 일반화되는 경향으로 중간계주와 함께 등장한다. 이러한 착의 법과 이중계주는 1458년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도 7), 1466년 왕룡사원 목조아미타불좌상(도 8)과 같은 동시기 불상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가슴에 유두의 표현은 조선 전기 불상에 나타나는 새로운 특징 중 하나로 수종사 금동불감 내벽의 부조 삼존불좌상(도 15)에도 나타나고

<sup>37</sup> 수종사 금동불좌상은 조선 전기에 관음·지장보살을 협시보살로 한 아미타삼존불상의 유행을 근거로 아미타불상으로 보기도 하지만, 복장발원문에서 '석가'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석가불임이 분명하다.

<sup>38</sup> 불감의 너비는 18.4cm, 금동석가불좌상 대좌 폭 9.8cm, 금동반가사유보살상 대좌 너비 4.4cm, 금동지장보살좌상 대좌 너비 4.05cm로 3구의 너비를 합친 길이는 18.25cm이므로 불감 내 여유 공간이 거의 남지 않는다.



도 7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 1458년,  
높이 72cm, 경북 영주 흑석사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 1992-93년,  
1994, p. 52〕



도 8 왕룡사원 목조아미타불좌상, 1466년,  
높이 77cm, 경북 경주 왕룡사원  
〔왕룡사원의 조선전반기 불상조각,  
2007, p. 5〕

있으며, 1450년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의 금은제아미타삼존불좌상(도 11), 1453년 금강산 은정골 출토 금동아미타불좌상, 1466년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상 등에서도 확인된다. 이와 같은 방형의 신체구성과 정상계주, 가슴에 유두 등의 표현이 유사한 작품으로는 조선 전기 나진 치경동 출토 금동불좌상(도 9)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중국 명대의 1411년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 건칠불좌상(도 10)에서도 보여 명대 불상 양식의 영향임을 확인할 수 있다. 대좌는 금동판을 오려서 만든 팔각형으로 문양이 없이 단순한 형태이다.

금동반가사유보살상(높이 9.3cm)은 석가불좌상의 험시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이 보살상은 조선시대에 보기 드문 반가사유상인데, 일반적인 반가사유의 자세와 반대로 왼쪽 다리를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려놓은 점이 특이하다. 얼굴은 가름하며, 위로 치켜 올라간 눈은 명대 티베트식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두 팔에 천의를 걸치고 군의는 대좌를 덮고 있으며, 굽은 연주문 목걸이와 화형 귀걸이를 했다. 대좌는 간략히 문양을 내고 하단은 연주문으로 장식했다. 푸른색으로 채색된 寶鬚의 일부는 높이 묶고 나머지는 어깨 아래로 내리고 있으며, 앞을 높이 세운 삼엽형의 보관을 썼다. 이같은 보관 형태는 1450년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 금은제아미타삼존불상의 보살상(도 11), 1468년 순천 매곡동 석탑 출토 금동아미타삼존불좌상의 관음보살상(도 12)과 같은 조선 전기 소형보살상의 수목형 보관과 유사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도 9 함북 나진시 치경동 출토 금동불좌상, 조선 전기, 높이 23cm,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소장 (『조선유적유물도감』11, 1992, p. 295)



도 10 건칠불좌상, 明 1411년, 높이 21.5cm,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 (『中國美術』3, 1972, 도 89)



도 11 금은제아미타삼존불상, 1450년, 높이 11cm,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 (『通度寺聖寶博物館 名品圖錄』, 1999, p. 13)



도 12 순천 매곡동 석탑 출토 금동아미타삼존불좌상, 1468년, 본존높이 12.2cm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Seelen auf Wanderschaft』, 2005, p. 193)



도 13 영암 용암사지 금동지장보살좌상.  
조선 전기, 높이 13.3cm,  
국립광주박물관 소장  
(『남도명품전』, 2002, p. 61)



도 14 금강산 향로봉 출토 금동지장보살좌상.  
1429년, 높이 11cm,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소장  
(『조선유적유물도감』16, 1994, p. 268)

금동지장보살좌상(높이 5.3cm)은 3구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다. 통견의 대의를 걸쳤으며 머리에는 관대나 장식이 없는 두건이 귀를 덮고 어깨까지 내려온다. 손은 신체에 비해 큰데, 왼손은 보주를 쥐고 오른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대어 앞쪽을 향하여 들었다. 두건을 쓰고 보주를 지물로 쥐고 있는 지장보살상은 고려 말-조선 전기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 예로 영암 용암사지 금동지장보살좌상(도 13), 1429년 금강산 향로봉 출토 금동아미타삼존불의 지장보살좌상(도 14) 등이 있다. 대좌는 석가불좌상이나 반가사유보살상과 달리 복련의 대좌 형식이다.

이와 같이 금동불상군은 도상이나 양식 등에서 각기 차이를 보이지만, 고려 후기 불상 양식을 계승하면서 명대 양식과 조선시대에 새로운 표현요소가 공존하는 조선 전기 불·보살상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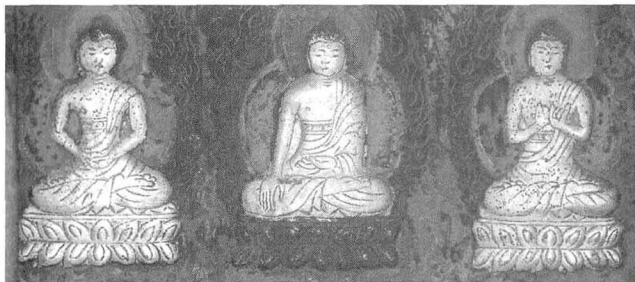
금동불상군 외에도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금동불상 3구가 안치되어 있었던 금동불감의 부조상과 불화이다.<sup>39)</sup> 이를 살펴봄으로써 제작 당시의 도상이나 양식적 특징 및 불상과의 연

<sup>39)</sup> 고려시대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동불감, 미국 새클러미술관 소장 금동불감, 천은사 금동불감을 살펴보면, 구조나 벽화장면, 금강역사상 등을 묘사한 전통이 수종사 금동불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수종사 금동불감은 후불벽화를 부조 대신에 채색벽화로 나타내고, 우진각지붕이 아닌 팔작지붕인 점 등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현순, 「高麗時代 末期 金銅佛龕의 研究」, 『고고미술』179(1988.9), p. 53.

<sup>40)</sup> 석가삼세불의 형식은 고려 말부터 조선 중기까지 조성된 석가불, 아미타불, 미륵불의 삼세불과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석가불, 아미타불, 약사불의 삼세불이 있다. 수종사 불감 석가삼세불의 우존과 좌존의 선정인과 설법인은 여



도 15 수중사 금동불감 정면, 15세기, 21×18.4×10cm, 불교중앙박물관 소장(불교중앙박물관 제공)



도 15-1 도15의 세부

관성 등에 관한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불감 내부 정면 벽에는 금니를 칠한 삼존불좌상과 그 아래에 오층탑 2개가 부조되어 있다(도 15). 삼존상의 본존은 향마촉지인, 우존은 선정인, 좌존은 설법인을

하고 있다(도 15-1). 양쪽 불상의 존명은 확실하지 않지만, 본존이 석가불인 석가삼세불로 추정된다.<sup>40)</sup> 이 삼존불좌상은 둥글면서 방형의 얼굴에 뾰족한 육계, 편단우견 착의법에 대좌는 양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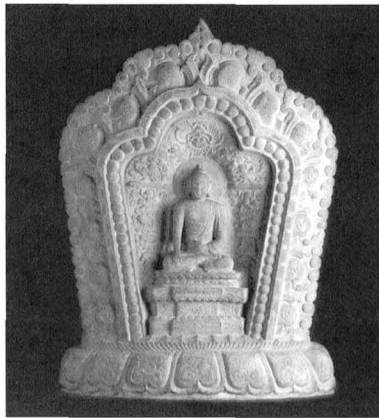
러 여래에서 사용되어 존명을 명확히 규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고려 후기 금강산 삼불암 삼세불상, 조선 전기 왕실에서 성행되었던 『禮念彌陀道場懺法』 변상의 삼세불을 미루어 볼 수 있다. 즉, 수중사 불감의 석가삼세불은 선정인의 우존은 아미타불, 설법인의 좌존은 미륵불로 짐작된다. 심주안, 「조선시대 三世佛像의 연구」, 『미술사학연구』 259(2008.9), p. 19. 이용윤, 「삼세불의 형식과 개념 변화」, 『동악미술사학』9(2008), pp. 99-101.



도 16 수중사 금동불감 후면(『불국토, 그 깨달음의 염원, 사찰벽화전』, 2006, p. 114)



도 17 금제불좌상, 明 1412-1431년,  
높이 43cm, 남경박물관 소장  
(『南京博物院』, 1982, 도 126)



도 18 석불좌상, 明 15세기, 높이 142.2cm,  
로얄온타리오박물관 소장  
(『Homage to heaven homage to earth』, 1992, p. 187)

련의 형태이다. 광배는 금동불감 후면 불화의 삼존불과 같이 두광과 신광을 등글게 표현했는데 주변으로는 붉은 화염을 표현했다. 특히 佛身の 허리가 길어진 장신화된 표현은 1458년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도 7), 1466년 왕룡사원 목조아미타불좌상(도 8), 1482년 천주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등과 같이 15세기 중반에 새롭게 등장하는 특징 중 하나이다. 이러한 신체비례는 명대의 작품으로 남경박물관 소장 금제불좌상(1412-1431)(도 17)이나 로얄온타리오박물관 소장 석불좌상(15세기)(도 18)과 유사하여 명대 양식의 영향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불교미술 양식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불감 뒷면에는 가운데 본존불을 중심으로 좌우에는 두 보살상과 두 나한상, 대좌 양 옆으로는 합장하고 있는 네 보살상과 두 나한상이 그려져 있다(도 16). 본존불은 대의를 걸친 착의형태, 수인과 결가부좌한 자세, 팔각연화대좌, 원형의 두광과 신광 등에서 1465년 일본 知恩院 소장 <관경16관변상도>의 본존불과 유사하다. 본존불과 양 옆의 보살상의 존명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설법인을 하고 있는 석가삼존불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불화는 금동불감 안에 안치된 금동석가불좌상과 관련있는 영산회상도를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불감 외부의 좌우 측면에는 보살상이 1구씩 그려진 것으로 보이나 박락이 심하여 정확한 존명을 알 수 없다. 다만 우측 보살상은 코끼리를 타고 있는 보현보살인 것으로 보이므로, 좌측 보살상은 사자를 타고 있는 문수보살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門扉의 내면에는 화염광배를 갖춘 금강역사상을 1구씩 새겨서 금니를 칠하였다.

이와 같이 금동불감은 금동석가불상과 보살상을 봉안한 불전 형식을 갖추었다. 또한 불감의 부조 삼존불과 불화의 특징을 통해 이 작품이 조선 전기의 새로운 양식을 적극 반영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1493년 봉안 금동불상 3구는 고려 후기 불상 양식의 계승하에 명대 불상의 요소가 융합되어 정착되어 가는 조선 전기의 새로운 양식적 특징이 반영되었다. 한편, 금동석가불좌상의 조성시기는 불상의 양식적 특징뿐만 아니라, 금동불감 내·외면의 부조 삼존불과 불화의 양식적 특징으로 보아 15세기 후반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된다. 반가사유보살상과 지장보살좌상 역시 조선 전기 보살상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석가불좌상과 동시대에 만들어진 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3구의 크기와 표현기법이 달라 조성시거나 제작자가 각기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 2. 목조상



도 19 수종사 목조상 3구, 15세기, 관음보살상 높이 6.6cm,  
불교중앙박물관 소장(불교중앙박물관 제공)

석탑의 초층 탑신석에서 발견된 금동불감을 들어낸 바닥에서 부서진 목조불감과 목조관음보살입상, 목조지장보살입상, 목조천왕상이 발견되었다. 목조불감은 파손되어 봉안 당시 구성배치를 알 수 없다. 하지만 불감 안에는 관음보살입상을 받치던 암좌가 있고 그 앞에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음보살입상 앞에 지장보살입상과 천왕상이 안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도 19).<sup>41</sup> 목조

상 3구는 불상을 주존으로 하는 일반적인 삼존상이 아닌 보살상과 천왕상으로 구성된 독특한 구성형식이다. 뿐만 아니라,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은 동등한 존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다르다는 점 역시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세 상이 제작자가 다르거나, 함께 제작된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봉안시에는 함께 불감 안에 안치함으로써 의미를 부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음보살상, 지장보살상, 천왕상이 함께 봉안되었을까. 그 이유는 세 상이 지닌 역할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은 중생구제의 성격으로 널리 신앙된 보살상이다. 천왕상은 현 상태로는 존명을 알 수 없으나 護國神, 財福富貴神으로 고려시대부터 유행하며 신앙된 비사문천을 함께 안치한 것이라 생각된다. 즉 발원자들은 관음보살상, 지장보살

<sup>41</sup> 목조불감은 문비는 金具로 장식하고 외면에는 黑漆, 내부는 금박을 입혀, 소형목조불감이지만 화려하게 장식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목조불감은 확인하기 어려워 당시 조사자였던 윤무병 선생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앞으로 목조불감에 대한 보존처리와 조사를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尹武炳, 앞의 논문, pp. 960-961.

상, 비사문천상을 안치함으로써 현세이익과 내세의 복을 기원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자 했던 것이다.

다음은 목조상 각각의 특징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목조관음보살입상(높이 66cm, 광배길이 8cm)은 四臂의 변화관음보살상이다. 위의 두 손은 합장하고 아래 두 손은 寶珠(혹은 寶鉢)을 들고 있다. 얼굴은 통통하고 명상하는 듯한 표정은 금동석가불좌상과 유사하다. 천의와 군의는 금박을 가늘게 잘라 격자무늬와 같은 형식으로 장식하였다. 머리 위에 쓴 보관에는 작은 구멍들이 뚫어져 있는데, 장식물이 있었던 흔적일 수도 있으나, 11면 관음을 표현한 것일 가능성도 있어 일면다비보살상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상 뒤에는 금동판에 당초문을 투각한 거신광의 광배를 갖추었다. 수종사 목조관음보살상은 현전하는 변화관음보살상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왕실발원의 탑 봉안 변화관음보살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sup>42</sup>

목조지장보살입상(높이 3.75cm)은 민머리에 왼손에는 보주를 들고 오른손에는 석장을 잡고 있다.<sup>43</sup> 얼굴의 이목구비는 마모되어 잘 알아볼 수 없다. 대의는 몸을 덮어 길게 늘어졌는데, 음각선으로 옷 주름을 표현했으며, 금·적색·흑색을 칠한 흔적이 있다. 이와 유사한 형식의 작품으로는 금강산 차일봉 출토 금동아미타삼존불상의 지장보살입상(도 20), 개심사 목조지장보살입상



도 20 금강산 차일봉 출토 금동아미타삼존불상, 15세기, 높이 17.7cm, 북한평양박물관 소장(『북녘의 문화유산』, 2006, p. 124)

<sup>42</sup> 현세이익적인 성격이 강한 변화관음보살상은 통일신라시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조선시대까지 조성되었다. 현전하는 고려시대 이후의 변화관음보살상으로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금동사비보살입상(고려 추정), 프랑스 기메박물관 소장 철조천수관음보살상(14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동천수관음보살상(조선 초) 등이 있다.

<sup>43</sup> 석장은 불감이 파손되면서 보살상의 손에서 빠져나갔는데 현재 확인할 수 없다. 尹武炳, 앞의 논문, p. 960.

등이 있다. 대좌는 특별한 장식이 없고 암좌 위에 받쳐져있다.

목조천왕상(높이 4cm)은 머리에 삼각형의 보관을 쓰고, 금·적·흑색을 칠한 갑옷을 걸쳤으며 암좌 위에 악귀를 밟고 있다. 얼굴 형태는 마모되고 양팔은 결실되어 정확한 존명을 알 수 없다. 또한 전해지는 작품 가운데 천왕상이 관음보살상, 지장보살상과 함께 불감 안에 구성된 예를 찾기 쉽지 않다. 그런데 고려시대에 조성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은제소형불감이나 東京帝室博物館舊藏의 관음·비사문천불감, 경상이나 경감 등에서 독존 또는 관음보살과 함께 등장하는 비사문천을 확인할 수 있다.<sup>44</sup> 비사문천은 사천왕 중 북방천으로 『毘沙門天王經』, 『佛說毘沙門天王經』 등과 같은 독립된 경전이 있을 정도로 널리 신앙되었다.<sup>45</sup> 그러므로 수종사 목조천왕상은 비사문천상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수종사 목조상은 고려 후기 양식을 계승하면서 조선시대에 나타나는 특징을 절충하고 있다. 구성은 관음보살상, 지장보살상, 천왕상으로 일반적인 형식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크기도 다르다. 이에 세 상이 제작시기 또는 제작자가 다를 가능성도 있지만, 발원자의 특별한 목적, 즉 부귀와 안녕 등 내세와 현세구복의 기원을 목적으로 함께 봉안된 것으로 생각된다.

## V. 왕실발원으로서 수종사 불상군의 의미

이 장에서는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종사 불상군에 대한 의문점 네 가지를 풀어가면서 조선 전기 왕실발원 불상으로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왜 수종사에 왕실 여성들이 불사를 행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수종사는 조선 초기 태종대부터 왕실 여성들이 시주나 불사 등을 통해 인연을 맺어오던 사찰이었다. 1439년에 승불자였던 태종과 의빈 권씨의 딸 정혜옹주의 사리탑이 수종사에 세워진 점과, 태종의 후궁 명빈 김씨가 시주한 금동석가불좌상이 수종사 석탑 안에 봉안된 점이 이를 입증해준다. 태종대 이후에 수

<sup>44</sup> 은제소형불감은 『대고려국보전』(호암미술관, 1995), p. 310, 관음·비사문천불감은 『朝鮮古蹟圖譜』9(朝鮮總督府, 1929), 도 4272 참고.

<sup>45</sup> 비사문천은 사천왕 중 북방천인 多聞天이 독립하여 이루어진 상으로, 갑옷을 입고 창과 보탑을 지물로 들고 악귀 위에서 있는 무장형상으로 표현된다. 『高麗大藏經』 『毘沙門天王經』(不空譯) 沈盈伸, 『고려시대 毘沙門天像』, 『미술사연구』 16(2002) p. 55. 조선 전기에는 비사문천이 독립상으로 현존하는 예가 드물며, 불화나 관화에서 주로 사천왕으로 함께 등장하고, 천은사 구장 금동불감 동판의 경우 측면 벽에 사천왕이 부조되어있다. 그런데 수종사 목조불감에 비사문천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유행했던 비사문천이 조선 전기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사는 왕실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수중사는 대표적 숭불왕인 세조가 중창한 사찰이자, 인수대비의 시주와 후원 하에 있던 왕실사찰이었다. 그러므로 수중사는 숭불자인 왕실 여성들에게 중요시될 수밖에 없는 사찰이었을 것이다. 특히, 성종대에 수중사의 사세가 컸으며, 여승과 사대부 여성들이 많이 드나들었다는 점은 성종의 후궁들이 친분이 있는 승려나 부인들을 통해 후원을 했던 사찰이었을 가능성도 보여준다. 한양에 근접한 여러 왕실사찰 중에서도 유독 수중사에 왕실 여성들의 불사가 많았던 것은 조선 초기 정해옹주의 사리탑이 세워지고, 수중사가 이를 이유로 중창되면서 영험이 있는 사찰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종의 후궁들이 불상군을 중수·발원하여 수중사 석탑에 봉안함으로써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자했을 것이다.

두 번째, 명빈 김씨가 금동석가불좌상을 조성한 시기와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을 누가, 언제 수중사 석탑에 봉안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명빈 김씨가 금동석가불좌상을 조성한 시기는 정확히 언제였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명빈 김씨의 재위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1411-1479년 사이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고려 후기 불상의 전통과 명을 통한 새로운 양식이 반영된 불상 및 불감의 부조상과 불화의 양식적 특징으로 미루어보아, 명빈 김씨가 사망한 1479년 이전, 15세기 후반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명빈 김씨가 금동석가불좌상을 조성한 이유는 석탑 봉안이 아닌 개인 원불이 목적이었다. 불상은 명빈의 사망 이후, 왕실 여성들과 인연이 깊은 왕실사찰이면서 명빈의 원찰이었던 이유로 수중사에 모셔졌을 것이다. 이 금동석가불좌상을 탑에 봉안한 인물이 성종의 후궁들이다.<sup>46</sup> 이들은 금동석가불좌상을 중수하여 발원문을 넣고, 금동보살상 2구, 목조상 3구와 함께 석탑에 봉안한 것이다. 그 근거는 먼저 성종의 후궁들이 이미 탑에 봉안된 불상을 시간차가 크지 않은 1493년에 불상 중수를 위해 탑을 해체하여 다시 봉안했을 가능성은 적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하나는 1970년 석탑 해체 당시, 2층과 3층 옥개석의 원공 내부 측면에 '弘治六年'이라는 목서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목서연도와 복장발원문의 시기가 1493년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47</sup> 그러므로 1493년에 석탑을 세우면서 불상군을 봉안하였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 성종의 후궁들이 왜 금동석가불좌상을 중수했으며, 이들이 함께 불사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성종의 후궁들이 명빈 김씨가 조성한 불상을 중수하여 수중사 석

<sup>46</sup> 유마리 선생은 1459년 수중사 창건과 함께 석탑이 세워졌으며, 이 때 명빈 김씨가 금동석가불좌상을 봉안했다고 보았다. 柳麻理, 앞의 논문, p. 45.

<sup>47</sup> 鄭永鎬, 앞의 논문, p. 23. 2층과 3층 옥개석 내부의 목서는 1970년 석탑 해체 이후 조사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탑에 봉안한 경우는 탑 봉안 불상 중에서도 이례적인 예로 주목된다. 명빈 김씨는 태종부터 성종재위시기에 이르기까지 왕을 보필하고, 내명부를 지킨 왕실의 어른이었다. 더구나 왕실의 대표적인 승불자였기 때문에 명빈이 조성한 불상은 후대 왕의 후궁들에게 의미있는 불상이었을 것이다. 이에 성종의 후궁들이 수종사에 모셔놓았던 불상을 중수해 복장물과 발원문을 넣고 금동불상 3구와 목조상 3구를 탑에 봉안하여, 부처의 공덕을 받고자 불사를 행한 것이라 생각된다.<sup>48</sup> 더불어 대비의 보호 하에 있던 수종사에 자신들이 모신 명빈 김씨가 조성한 불상을 석탑에 봉안한다는 명분은 당시 유신들의 반대와 억불정책 속에서 조용하고 안전하게 불사를 행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런데 성종의 후궁들 중 숙용 홍씨, 숙용 정씨, 숙원 김씨가 함께 불사를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들 사이에는 자녀들의 혼사를 통해 또 다른 인척관계를 맺었던 것이 주목된다. 즉, 숙용 홍씨와 숙용 정씨는 평양조씨 가문과 사돈을 맺으면서 숙용 홍씨의 아들 양원군의 아내와 숙용 정씨의 아들 봉안군의 아내는 사촌지간이 된다. 한편 숙용 홍씨는 숙원 김씨 집안과 사돈을 맺으면서 숙용 홍씨의 아들 건성군의 아내에게 숙원 김씨는 이모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도표 1). 그러므로 세 후궁들은 긴밀한 관계와 친분은 물론, 불사의 목적과 기원이 동일하였기에 함께 뜻을 모아 불사를 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네 번째, 금동불상 3구와 목조상 3구는 어떠한 구성으로 함께 봉안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수종사 금동불상과 목조상은 다른 예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삼존형식이다. 먼저 금동불상 3구는 처음부터 삼존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명빈 김씨가 금동석가불좌상을 조성한 후에 성종의 후궁들이 두 보살상을 봉안한 것으로 보였다. 이는 세 상이 형태와 크기가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형식상으로도 일반적인 삼존불의 구성이 아니어서 함께 조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동석가불좌상을 중수하면서 금동반가사유보살상과 금동지장보살좌상을 안치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목조상 3구는 관음보살상, 지장보살상, 천왕상의 이례적인 구성으로 흥미롭다. 이 역시 조성시기나 제작자가 다를 가능성이 있지만, 현세이익과 내세구복의 의미로서 세 상을 함께 봉안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발원문에서 언급된 석가불과 관음보살은 금동불감의 금동석가불좌상과 목조불감의 목조관음보살입상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sup>49</sup> 즉, 발원자인 숙용 홍씨와 정씨, 숙원 김씨가 금동

<sup>48</sup> 조선시대 탑 봉안 불상으로는 수종사 불상군 외에 전남 순천시 매곡동 석탑 금동아미타삼존불상(1468), 봉학사지 오층석탑 삼존불상(1465-1487), 무량사 오층석탑 금동아미타삼존불상 및 보살상(15세기 후반), 금산사 오층석탑 금동불·보살상(1492) 등이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 탑 봉안 불상은 15세기 후반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sup>49</sup> “...釋迦如來一軀 觀音菩薩一軀安激...”

불상과 목조상을 탑에 함께 봉안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금동불상과 목조상이 다른 시기에 조성되었더라도 양식적 특징이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동불상을 봉안 후 목조상 봉안을 위해 또 다시 탑을 해체하여 넣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 VI. 맺음말

조선 전기에는 억불정책 속에서도 많은 왕실불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대비·비빈·공주 등 왕실 여성들의 승불과 불사활동은 조선시대 불교미술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 대표적인 왕실발원 불상 중 하나가 수종사 팔각오층 석탑 봉안 불상군이다.

수종사는 조선 초기부터 왕실과 인연을 맺어왔다. 1439년에 태종의 딸 정혜옹주 사리탑이 세워진 계기로 1459년에 세조에 의해 증창되면서 사세가 커지고 영험있는 사찰로 성장하였다. 특히 성종대에는 대비의 비호아래 있던 왕실사찰로, 많은 여성들이 출입했다는 점은 성종의 후궁들이 불상을 중수하여 수종사 탑에 불상군을 봉안하게 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수종사 1493년 봉안 불상군은 금동석가불좌상 바닥의 명문과 복장발원문을 통해, 중수시기와 왕실 여성들이 발원한 탑 봉안 불상임을 알 수 있다. 즉, 1493년에 숙용 홍씨, 숙용 정씨, 숙원 김씨가 왕실의 변역과 왕실일가 및 자녀의 수복장수 등을 기원하면서 명빈 김씨가 시주한 금동석가불좌상을 중수하였다. 그리고 수종사 오층석탑의 초층 탑신석에 금동불상 3구와 목조상 3구를 불감 안에 넣어 봉안한 것이다.

발원자들 사이에는 불사 및 인척관계를 통한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수 있다. 먼저 태종대의 왕실 여성들이 수종사와의 인연으로 명빈 김씨가 조성한 불상이 수종사에 모셔지게 되었다. 이후 불상을 중수한 숙용 홍씨, 숙용 정씨, 숙원 김씨는 1490년 해인사 중창불사에 시주자로 참여했을 뿐 아니라, 자식들의 혼인을 통해 인척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들은 서로간의 밀접한 관계와 불사의 목적이 동일하였기에 함께 불사를 행하였을 것이다.

금동석가불좌상은 명빈 김씨의 소지불이었다가 명빈의 사후 수종사에 모셔놓았던 것을 성종의 후궁들이 1493년에 중수하면서 석탑에 봉안되었다. 이는 불상의 조성과 중수시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과, 석탑의 2·3층 옥개석에 '弘治六年'(1493년)이라는 목서가 있었던 점이 이를 입증해준다.

금동불감 안에 안치된 금동불상 3구의 구성은 석가불좌상, 반가사유보살상, 지장보살좌

상으로 삼존형식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징과 크기가 이질적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삼존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먼저 석가불좌상이 불감에 안치되고, 이후 반가사유보살상과 지장보살좌상이 안치된 것으로 생각된다. 목조상 3구는 관음보살상, 지장보살상, 천왕상으로 구성되었다. 목조상도 일반적인 구성형식이 아니지만, 세 상이 지닌 성격인 현세이익과 내세구복을 기원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자한 것이라 생각된다. 1493년 봉안 수종사 불상군은 15세기 불·보살상의 특징이 반영된 대표적인 작품으로, 고려 후기 전통양식의 계승과 중국 명대 불상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양식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 불상양식이 정착되어 가는 조선 전기 불교미술의 성격을 살펴 볼 수 있는 중요 자료가 된다.

1493년 봉안 수종사 불상군은 기년명이 있고 발원자가 확실한 왕실발원의 대표적 불상으로서, 조선 전기 불교조각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여러 명의 왕실 여성 발원자와 불상의 중수 및 탑 봉안, 불상의 구성 등에서 특이점을 보이고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주제어(key words) \_ 수종사(Sujongsa Temple), 탑 봉안(Enshrined in a pagoda), 불상(Buddhist Statue), 조선 전기(Early Joseon), 왕실발원(Commissioned by the royal family), 왕실 여성(Female members of the royal family)

■ 투고일 2010년 11월 24일 | 심사개시일 2010년 12월 4일 | 심사완료일 2010년 12월 30일 ■

## 참고문헌

### 1. 경전 및 사료

『高麗大藏經』  
『梵宇考』  
『妙法蓮華經』  
『璿源系譜記略』  
『承政院日記』  
『朝鮮王朝實錄』  
『重訂南漢志』

### 2. 보고서 및 단행본

『京畿道佛蹟資料集』, 경기도박물관, 1999.  
權相老, 『韓國寺刹全書』下, 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 1988년 指定篇』,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9.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 1992-93년 指定篇』,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94.  
문명대, 『왕릉사원의 조선전반기 불상조각』, 한국미술사연구소, 2007.  
寺刹文化研究院, 『전통사찰총서』5, 1995.  
정은우, 『고려후기 불교조각 연구』, 문예출판사, 2004.  
지두환, 『성종대왕과 친인척』1-5, 역사문화, 2007.  
한우근, 『儒敎政治와 佛敎: 麗末鮮初 對佛敎施策』, 일조각, 1993.  
『海印寺 대적광전·법보전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조사보고서』, 해인사·문화재청, 2008.

### 3. 논문 및 간행물

강우방, 『佛舍利莊嚴論』, 『佛舍利莊嚴』, 국립중앙박물관, 1991, pp. 128-234.  
강희정, 『조선 전기 불교와 여성의 역할』, 『亞細亞女性研究』41, 2002, pp. 269-313.  
곽동석, 『고려 경상의 도상적 고찰』, 『미술자료』44, 1989, pp. 67-113.

- 김정희, 「孝寧大君과 朝鮮 初期 佛教美術-後援者를 통해 본 朝鮮 初期 王室의 佛事」, 『美術史論壇』25, 2007, pp. 107-150.
- 문명대, 「조선 전반기 조각사론」, 『한국의 불상조각』4-삼매와 평담미: 高麗·朝鮮 佛教彫刻史 研究. 예경, 2003, pp. 306-327.
- \_\_\_\_\_, 「朝鮮 前半期 彫刻의 대 中國(明)과의 交涉研究」, 『朝鮮 前半期 美術의 對外交渉』, 예경, 2006, pp. 131-151.
- 문현순, 「高麗時代 末期 金銅佛龕의 研究」, 『고고미술』179, 1988.9, pp. 33-72.
- \_\_\_\_\_, 「明 初期 테베트식 佛像의 特徵과 영향」, 『미술사연구』13, 1999, pp. 119-152.
- \_\_\_\_\_, 「朝鮮前期의 새로운 佛敎 圖像-천은사 구장 금동불감의 동판부조와 불좌상을 중심으로-」, 『미술사 연구』15, 2001, pp. 195-223.
- \_\_\_\_\_, 「1450-1460년대 紀年銘 아미타삼존불에 대한 고찰」, 『불교미술사학』3, 2005, pp. 129-156.
- 박도화, 「15세기 후반기 王室發願 版畫-정희대왕대비 발원본을 중심으로-」, 『강좌미술사』19, 2002, pp. 155-183.
- 朴贊熙, 『朝鮮初期塔 奉安地藏菩薩像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 宋殷碩,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 금은제아미타삼존불좌상 연구」, 『불교미술사학』3, 2005, pp. 101-123.
- 申解淳, 「官僚制의 對立」, 『한국사』12, 국사편찬위원회, 1977, pp. 163-196.
- 沈盈仲, 「고려시대 毘沙門天像」, 『미술사연구』16, 2002, pp. 55-80.
- 심주완, 「조선시대 三世佛像의 연구」, 『미술사학연구』259, 2008.9, pp. 4-40.
- 安啓賢, 「佛敎抑敎策과 佛敎界의 動向」, 『한국사』11, 국사편찬위원회, 1974, pp. 149-183.
- 양만우, 「李朝妃嬪崇佛小考」, 『全州教育大學論文集』제2집, 1967, pp. 81-103.
- 柳麻理, 「水鍾寺 金銅佛龕 佛畫의 考察」, 『美術資料』30, 1982, pp. 37-55.
- \_\_\_\_\_, 「水鍾寺銅鍾-國立博物館 新收遺物 소개」, 『박물관신문』제266호, 국립중앙박물관, 1993.10.
- 尹武炳, 「近來에 發見된 舍利關聯 遺物」, 『美術資料』1, 1960, pp. 5-8.
- \_\_\_\_\_, 「水鍾寺八角五層石塔內發見遺物」, 『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을유문화사, 1969, pp. 947-966.
- 이봉춘, 「朝鮮 成宗朝의 儒敎政治와 排佛政策」, 『佛敎學報』28, 1991, pp. 259-290.
- \_\_\_\_\_, 「조선 전기 승불주와 흥불사업」, 『불교학보』38, 2001, pp. 43-63.
- 이분희, 「조선전반기 아미타불상의 연구」, 『강좌미술사』27, 2006, pp. 191-224.
- 이숙희, 「통일신라시대의 변화관음보살상-11면관음상과 천수관음상을 중심으로」,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2, 사회평론, 2006, pp. 52-80.
- 이순규, 「조선 초기 여성의 신앙생활」, 『歷史學報』150, 1996, pp. 41-82.
- 이용윤, 「삼세불의 형식과 개념 변화」, 『동양미술사학』9, 2008, pp. 91-118.
- 李銀洙, 「朝鮮初期 金銅佛像에 나타나는 明代 라마불상양식의 영향」, 『강좌미술사』15, 2000, pp. 47-76.
- 鄭永鎬, 「水鍾寺石塔內發見 金銅如來像」, 『考古美術』106·107, 1970, pp. 22-27.

- 정은우, 「고려시대의 관음신앙과 도상」, 『불교미술사학』7, 2009, pp. 113-127.
- 천혜봉, 「조선 전기 불서판본」, 『한국서지학연구』, 삼성출판사, 1991, pp. 673-712.
- 최성은, 「朝鮮初期 佛教彫刻의 對外關係」, 『강좌미술사』19, 2002, pp. 41-58.
- 최소림,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 연구」, 『강좌미술사』15, 2000, pp. 77-100.
- 허형욱, 「전라남도 順天市 梅谷洞 석탑 발견 成化四年(1468)銘 청동불감과 금동아미타삼존불좌상」, 『미술자료』70·71, 국립중앙박물관, 2004, pp. 147-164.
- 洪思俊, 「無量寺五層石塔 解體와 組立」, 『미술사학연구』117, 1973, pp. 2-8.
- 황금순, 「觀音·地藏菩薩像의 來世救濟信仰」, 『미술사연구』19, 2005, pp. 59-86.

#### 4. 도록

- 『南道名品展』, 國立光州博物館, 2002.
- 『북녘의 문화유산』, 국립중앙박물관, 2006.
- 『佛: 불교중앙박물관 개관특별전』, 불교중앙박물관, 2007.
- 『불국토, 그 깨달음의 염원, 사찰벽화전』, 국립대구박물관, 2006.
- 『조선유적유물도감』11,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2.
- 『조선유적유물도감』16,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4.
- 『朝鮮前期 國寶展』, 호암미술관, 1996.
- 『通度寺聖寶博物館 名品圖錄』, 通度寺聖寶博物館, 1999.
- 『中國の博物館』4-南京博物院, 東京: 講談社, 1982.
- 『中國美術』3, 東京: 講談社, 1972.

*Homage to heaven homage to earth: Chinese treasures of the Royal Ontario Museum*, Toronto: Royal Ontario Museum, 1992.

*Seelen auf Wanderschaft: Meisterwerke buddhistischer Kunst der Joseon-dynastie aus dem National Museum of Korea*, Frankfurt: Enter Korea, 2005.

## 국문초록

1493년 수종사 석탑 봉안 불상군은 기년명이 있고 발원자가 확실한 왕실발원 불상으로 조선 전기 불교 조각의 대표작이다. 특히 여러 명의 왕실여성 발원자와 불상의 중수, 탑 봉안, 불상의 구성 등에서 특이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수종사는 1439년에 태종의 딸 정혜옹주 사리탑을 세운 것을 계기로 1459년 세조에 의해 증창되면서 사세가 커지고 영험있는 사찰로 성장하였다. 특히 성종대에는 대비의 비호아래 있던 왕실사찰로, 많은 여승과 사족의 여성들이 출입했다. 이는 성종의 후궁들이 불상을 중수하여 수종사 석탑에 불상군을 봉안하게 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1493년 봉안 수종사 불상군은 금동석가불좌상 바다의 명문과 복장발원문을 통해 태종의 후궁 명빈 김씨가 시주하여 조성되었고, 1493년에 성종의 후궁 숙용 홍씨, 숙용 정씨, 숙원 김씨가 왕실의 번영 및 왕실일가와 자녀의 수복장수를 기원하면서 불상을 중수하여 석탑의 초층 탑신석에 봉안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금동석가불좌상은 명빈 김씨의 소지불이었다가 명빈의 사후 성종의 후궁들이 1493년에 중수하면서 석탑에 봉안된 것으로 파악된다. 불상의 조성과 중수시기가 15세기 후반으로 크게 차이나지 않고, 석탑의 2·3층 옥개석에 弘治六年(1493년)의 목서가 있었던 점 등은 탑 조성시 불상을 봉안했음을 입증해준다.

한편, 발원자들은 불사 및 인척관계를 통해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다. 태종대의 왕실 여성들이 수종사와의 인연으로 명빈 김씨가 시주한 불상이 수종사에 모셔지게 되었다. 불상을 중수한 숙용 홍씨와 정씨, 숙원 김씨는 1490년 해인사 중창불사에 시주자로 참여하였을 뿐 만 아니라 자식들의 혼인을 통해 인척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들은 긴밀한 관계와 불사의 목적이 동일하였기에 함께 불사를 행하였을 것이다.

금동불감에 안치된 금동불상 3구는 석가불좌상, 반가사유보살상, 지장보살좌상으로 일반적인 삼존형식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크기와 특징이 다르다. 이는 처음부터 삼존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석가불좌상이 안치된 불감에 이후 반가사유보살상과 지장보살좌상을 넣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목조불감의 목조상 3구는 관음보살상, 지장보살상, 천왕상으로 구성형식과 크기의 차이가 있어 독특하다. 이는 현세이익과 내세의 복을 기원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자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1493년 석탑 봉안 수종사 불상군은 15세기 불·보살상의 특징이 반영된 대표적인 작품으로, 고려 후기 양식을 계승하면서 중국 명대 불상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조선 전기의 새로운 양식이 동시에 반영되었다. 이는 조선시대 불상양식이 정착되어 가는 조선 전기 불교미술의 성격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 자료가 된다.

## Abstract

# Royal Family-Commissioned Buddhist Statues Enshrined inside the Stone Pagoda of Sujongsa Temple in 1493

**Park Ah-yeon\***

The group of miniature Buddhist statues, enshrined inside the stone pagoda of Sujongsa Temple, was commissioned by Joseon's royal family, and is precisely dated to 1493. This series of statues, considered a masterpiece of early Joseon Buddhist sculpture, were restored on the commission by several female members of the royal family, and are noted for their peculiar details related to their restoration, enshrinement and composition.

Sujongsa Temple was rebuilt in 1459 on the order of King Sejo, two decades after a relic pagoda was erected there in 1439 for Princess Jeonghye, a daughter of King Taejong. After its reconstruction into a temple of impressive proportions, Sujongsa gained in prestige, and came to be considered as a temple endowed with supernatural powers.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jong, in particular, the temple, under the protection of the queen dowager, was frequented by many Buddhist nuns and women of high social station. The fact that several of King Seongjong's consorts together commissioned the restoration of this group of Buddhist statues and had them enshrined inside the stone pagoda is probably not unrelated to this history of Sujongsa Temple, in which it drew a large crowd of women faithful.

The inscription on the bottom of the gilt-bronze seated Buddha, one of the Buddhist

---

\* National Museum of Korea

statuettes, and the text of prayer enshrined together with them reveal that their creation was funded by Myeongbin, a consort to King Taejong. In 1493, three of the consorts of King Seongjong, namely, Sugyong Lady Hong, Sugyong Lady Jeong and Sugwon Lady Kim, decided to together commission their restoration as an offering for the prosperity of the dynasty and the health and longevity of royal family members and their own children. After the restoration, they were housed inside the first floor of the stone pagoda during the same year, according to the same source.

The gilt-bronze seated Buddha appears to have been the personal devotional object of Myeongbin Lady Kim, but enshrined later, together with other statuettes in 1493, following the restoration project commissioned by the three consorts of King Seongjong. The restoration of these statues took place shortly after their initial creation, both in the late 15th century. Also, the year 1493 (弘治六年, 6th year of Hongzhi Year), written in ink on the second and third-level roof stone of the stone pagoda, suggests that the statues were placed inside the pagoda at the time of its construction.

The people who funded the creation and restoration of these statues are linked together through religious as well as family ties. It was thanks to the frequentation of Sujongsa Temple by the ladies of the royal family during King Taejong's reign that the Buddhist statue commissioned by Lady Kim was housed in this temple. The three consorts to King Seongjong funded the reconstruction of Haeinsa Temple in 1490 and, meanwhile, they were relatives through marriages of their children. Beyond these personal and family ties, these three ladies also probably shared the common faith-based goal in commissioning the restoration project.

The three gilt-bronze Buddha statues lodged inside a gilt bronze shrine represent a seated Sakyamuni, a pensive Bodhisattva and a seated Ksitigarbha, which is not a typical composition of a Buddha triad. They, furthermore, vary in size and appearance. The three Buddha statues, therefore, are not likely to have been planned to be grouped together from the outset, but the pensive Bodhisattva and the seated Ksitigarbha appear to have been added to the shrine to accompany the seated Sakyamuni which was placed there alone initially. Meanwhile, the three wooden statues inside a wooden shrine represent Avalokitesvara, Ksitigarbha and Heavenly King and form a peculiar set, as they differ from

each other in style as well as in size. Together, they seem to symbolize worldly benefits and blessings in the afterlife.

This group of Buddha statues enshrined in Sujongsa Temple in 1493 eloquently embody the characteristics of 15th century Buddhist sculpture; in other words, the new style forged in early Joseon by blending native sculptural traditions from the late Goryeo Dynasty with the sculptural style of the Ming Dynasty. These statues, therefore, are invaluable for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Buddhist art in early Joseon, during which the sculptural style specific to the dynasty was slowly taking shape.